



### 광주교육청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 발대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2일 광주창의융합교육원에서 '2023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발대식은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목적을 공유해 국외 체험활동의 안전성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발대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포토존을 만들어 프로그램 참여 가족과 시교육청 관계자가 함께 발대식 현장을 추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들이 진행하는 코너를 넣어 학생 주도형 발대식이 되도록 기획했다. 주요 내용은 △평화·통일 분야 참여 학생들의 공연(글로벌 퍼포먼스) △단복 착용식 및 선서 △학생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소개(한 바퀴 프로그램 둘러보기) △학생이 진행하는 토크콘서트(세계로! 미래로! 글로벌 talk 한 바퀴) 안전교육(안전 Yes! 학교폭력, 성폭력 No!!) 등이다.

양기람 기자



### 동강대-투게더광산 '청춘월담' 협약

광주 광산구는 지난 12일 동강대학교-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과 현장 중심의 더 나은 복지환경을 조성해 지역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청춘월담(越談)'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과 함께 지역의 복지문제의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청춘월담'은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대학과 청년이 협력해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은 사업 추진을 위해 각 기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약속하는 의미다. 이를 시작으로 세 기관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들에게 현장 경험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복지 현장 체험과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광산구는 청춘월담 대기단계에 '지역 주도형 돌봄 서비스'에 직접 참여해 행정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상철 기자



### '21세기 팝 아이콘' 방탄 데뷔 10주년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사진)이 13일 데뷔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13년 6월13일 데뷔(첫 싱글 '투 쿨 포 스쿨(2 COOL 4 SCHOOL)' 발매일과 첫 쇼케이스는 2013년 6월12일이지만 첫 무대를 선보인 6월13일을 데뷔일로 한다)한 이후 K팝은 물론 전 세계 대중음악계에서 최초·최다 기록을 쏟아냈다.

데뷔 싱글의 타이틀곡 '노 모어 드림(No More Dream)'으로 가요계에 출사표를 던진 방탄소년단은 데뷔와 동시에 국내외 신인상을 휩쓸었다.

방탄소년단의 행보 자체가 K-팝 '최초'의 역사가 됐다. '빌보드 200'에서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를 시작으로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 '맵 오브 더 솔: 세븐', 'BE' 그리고 앤솔러지 음반 '프루프'까지 통산 6개 앨범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은 이 외에도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에 3년 연속 후보에 오르고, 단독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와 함께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통하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5년 연속 수상, '빌보드 뮤직 어워즈'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이정표를 남겼다.

또 방탄소년단은 음악시장 너머까지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 2018년과 2020, 2021년 총 3번 유엔(UN) 총회

에 참여한 방탄소년단은 글로벌 청년 대표로 연설했다.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되기도 했다. 작년에는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백악관에 초청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반(反) 아시아 증오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화합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프루프' 앨범을 기점으로 2막에 진입했다. 멤버들의 순차적인 군 복무로 인해 본격적인 개별 활동을 병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9일에는 데뷔 10주년 기념 디지털 싱글 '테이크 투(Take Two)'를 발표해 건재를 과시했다.

10년간 찬란한 순간을 함께한 아미에 대한 고마움, 팬들이 보내 준 사랑에 대한 감사, 앞으로도 함께해자는 바람을 담은 곡이다.

오는 17일에는 화려하게 대미를 장식할 'BTS 10th 애니버서리 페스타@여의도(Yeouido)'가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펼쳐진다. 방탄소년단은 대중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스를 준비한다. 당일 오후 5시 리더 RM과 함께하는 '오후 5시, 김남준입니다.'와 오후 8시30분부터 약 30분 동안 방탄소년단의 히트곡과 정국의 내레이션이 더해진 불꽃놀이를 예고했다.

이주영 기자



### 이상훈 이사장, 광주 산단 현장 방문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13일 광주 산업단지 현장을 방문,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이날 방문은 광주지역본부 직원들을 격려하고 광주지역 주요 현장을 찾아 입주기업 애로청취 및 지역본부 주요 사업 추진현황·산업단지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이사장은 광주첨단스마트그린산단사업 현장과 광주첨단과학기산단사업 주요 기업인 ㈜DH글로벌을 방문했으며, 광주첨단경영자협의회와 광주평동경영자협의회 등 광주지역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역의 현안을 청취했다.

이 이사장은 "광주첨단산단을 비롯한 광주지역 산업단지를 디지털·저탄소의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현장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 광주도시철도, 첫 친환경 초음파 레일 시연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조익문)와 살롬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 김봉택)은 최근, 광주시 동구 용산차량기지에서 '친환경 자주식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차'의 공동 개발을 마치고 철도 운영기관 담당자들을 초대해 시연회를 열었다. (사진)

초음파 레일 탐상차는 레일 내부의 결함을 검사하는 비파괴 초음파 장비로, 차량에 장착해 열차 운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이번 레일 탐상 차량은 지난 2020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된 이후, 공사 등 연구팀이 3년간 공동 연구에 몰두한 끝에 얻은 결실이다.

이 시스템은 살롬엔지니어링(주)이 보유한 핵심기술인 32채널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방식을 적용, 다양한 각도의 초음파를 레일에 투사해 내부의 결함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다.

김성수 기자



### 북부소방, 교통사고 대비 차량 문개방 훈련

광주 북부소방서는 오는 19일까지 교통사고 및 차량화재 등을 대비한 특별훈련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이번 훈련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현장활동 대원들의 초기 대응 범위 확대 및 능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119구조대원을 훈련교관으로 현장활동 전 대원을 대상으로 폐차량을 활용한 다양한 구조기법 및 안전하고 적극적인 현장활동 노하우 공유 등 실습 위주의 훈련을 통한 반복·숙달에 중점을 뒀다.

주요 훈련 내용은 △폐차량 활용 문개방 및 유리창 파괴 실습 △가상 요구조자를 활용한 인명구조 훈련 △차량 파손 최소화 훈련 △유압장비, 절단기 등을 사용한 차량 문개방 숙달훈련 △구조대상자의 기본 응급처치 등이다.

정성현 기자



### 김동진 광주대 총장,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김동진 광주대학교 총장과 김갑용 부총장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 남구에 기부금을 쾌척했다. (사진)

13일 남구에 따르면 김동진 광주대 총장과 김갑용 부총장은 지난 12일 오후 3시 김병내 남구청장에게 고향사랑 기부금 15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이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남구에 기부한 이유는 관내에 광주대가 위치해 있고, 그동안 남구청과의 관·학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했기 때문이다.

김 총장은 "남구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했다. 많이 부족하지만 고향사랑 기부금이 우리 남구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 광주시의원 8명 '제13회 우수의정 대상'

광주시의회는 13일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

우수회의대상은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가 주관, 시·도의원 중 지역사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의정활동 우수 의원에 주는 상이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명진 의원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광주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활발히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수기 의원은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을 제정,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한 점을 인정받았다.

서용규 의원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광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소외계층의 복리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지현 의원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조례 제정을 통해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과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밖에 서임석·심장욱·정다운·홍기철 의원 등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수상 의원들은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헌신하고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